

『 국제무역의 중심, 인천 』

지리교육과 3학년 신초영

1. 위치

1) 수리적 위치

〈 인천의 수리적 위치 〉

단	지점	극점
동 단	계양구 하야동	동경 126°47'44"
서 단	옹진군 백령면	동경 124°36'41"
남 단	옹진군 덕적면	북위 36°55'10"
북 단	옹진군 백령면	북위 37°58'55"

출처:인천통계연보

2) 관계적 위치

한반도 서해안 중앙부에 위치한 인천은 남과 북의 중간지대로 동쪽으로 서울특별시, 남쪽으로 시흥시, 북쪽으로 개풍군 서쪽으로 서해와 접하며 여러 개의 도서들을 가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향후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 나갈 요충지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며 2020년을 목표로 인천경제자유구역 건설하며 송도지구·청라지구·영종지구가 각기 특성 있게 형성되고 있다.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도 〉

출처: 인천광역시청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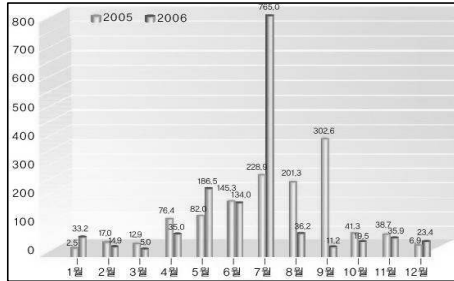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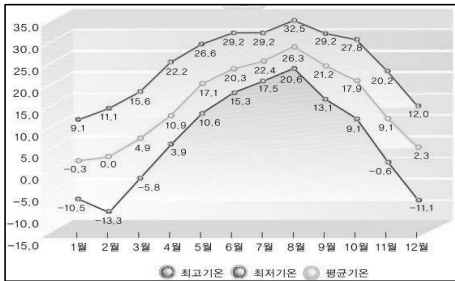
2. 인문·자연환경

1) 지리적 특성

해안과 접한 서쪽으로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이 길고 복잡하며 섬이 많다. 모두 152개의 섬이 있으며 그 중 113개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다. 산

들은 대부분 해발 300m이내이며 구릉성 산지가 해안 가까이 발달했기 때문에 평지의 규모가 좁다. 굴포천·청천천 등의 몇몇 하천은 한강으로 흘러가고, 그 외에는 서해로 유입되는데 대부분 하천의 길이가 매우 짧은 편이다.

2) 기후



〈 평균강수량 〉

출처 : 인천통계연보

〈 평균기온 〉

출처 : 인천통계연보

대륙성과 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1997~2006년의 10년간 평균 기온은 12.7°C로 다소 냉온이며, 평균 강수량은 1317.3mm, 강우일수는 평균 101일 정도로 중부와 남부의 다른 지방에 비하면 비가 적게 오는 편이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고 안개가 많은 곳으로 평균 안개일수가 50.8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안개 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3) 인구나 면적

-인천의 인구는 2007. 12월 266만 명으로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가장 인구가 많으며, 반대로 섬지역인 용진군이 가장 적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39,463명이며, 이 중 중국인(15,943명)이 가장 많다.

-면적은 현재 1002.07km²으로 강화군이 411.20km²로 제일 넓고 반면 동구가 7.11km²로 가장 좁다.

3. 인천광역시의 역사

인천의 최초명칭은 미추홀이다. 미추홀 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고구려 장수왕 때(475) 매소홀현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경덕왕 때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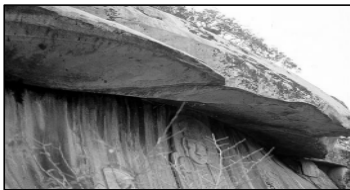
자식으로 바뀌어 소성현(邵城縣)이 되었다. 고려 숙종(1095~1105)때 숙종 어머니의 내향(內鄉)이었던 관계로 경원군(慶源郡)으로 개칭·승격되었다. 그 뒤 인종(1122~1146) 때에 인종조 순덕왕후 이씨의 내향이라 하여 인주(仁州)로 승격되는데 이자겸(李資謙)의 난으로 인주 이씨가 몰락하다시피 하였으나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다시 경원부로 환원되었다. 그것은 ‘칠대어향(七代御鄉)’이라 하여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7대 동안 고려왕실과 관련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가 개칭되면서 인천은 다시 인주로 강등되었다. 그러나 태종13년 주(州)자를 가진 도호부 이하의 군·현명을 산(山),천(川) 두 글자 중 하나로 개정토록 하여 현재의 인천으로 탄생하게 되었고, 그날(1413년 10월 15일)을 기려 ‘인천시민의 날’이 제정되었다.

4. 인천시의 산업경제

인천은 대표적 공업도시라 할 수 있는데, 취업자구성면이나 지역내 총생산의 생산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은 광공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인천은 20~30대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의 위성도시로써 인천의 산업구조는 서울에 종속되어 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이 일어난다. 인천시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다수의 대기업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총생산이 높고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지만 대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생산품목도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재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발생한 소득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

5. 관광자원

1) 강화 석모도



〈 눈썹바위 〉

출처: <http://cafe.naver.com/dorado3579>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三山面)에 딸린 섬으로, 면적은 42.841km², 해안선길이 41.8km이다. 강화도 외포항에서 서쪽으로 1.5km 해상에 위치한다. 섬 중앙부의 낙가산(洛伽山) 기슭에 자리 잡은 보문사(普門寺)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7호인 보문사 석실(普門寺石室)과 제29호인 보문사 마애석불

좌상(普門寺磨崖石佛坐像), 기념물 제17호인 보문사 향나무, 민속자료 제1호인 보문사 맷돌이 있다. 보문사뒤편 낙가산 중턱에 화강암의 판상절리인 ‘눈썹바위’도 볼 수 있다.

2) 월미도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육계도로 지명은 섬의 생김새가 반달의 꼬리처럼 휘어져 있는데서 유래되었다. 1987년 ‘월미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된 이래 문화예술 공연과 월미축제 등 각종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다. 현재 소월미도와 함께 인천 내항(內港)북서쪽의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3)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매년 가을에 열리는 축제로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양 국민간의 우호증진과 두터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축제이다. 중국의상체험·중국음식요리체험·중국차체험 등 각종 체험과 한·중 전통 예술단의 공연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올해 벌써 제6회 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4) 2009세계도시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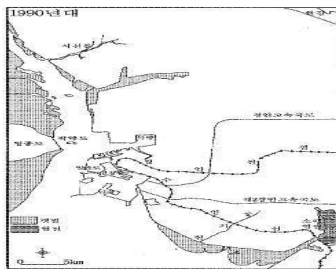
‘내일을 밝히다!(Lightening Tomorrow!)’의 주제를 내걸고 오는 2009년 세계도시축전이 인천에서 열린다.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투모로우시티 등 인천시 전역에서 개최될 세계도시축전은 2009.8.7 ~ 10.25 약 80여 일간 전 세계에 인천을 널리 알리며, 미래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린다. 인천의 각 전시관 행사 및 친환경과 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여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써 구성되어 있다.

6. 인천시 연안환경의 변화

1) 인천의 갯벌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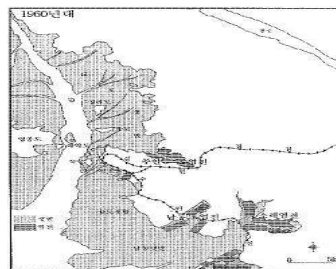
인천연안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 의해 육지에서 공급되는 담수와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해수가 혼합되는 반 폐쇄형 지역으로 상당한 양의 물질이 이곳에 모여 쌓였다가 유출된다. 또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크고 작은 150여 개

의 섬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자연 환경의 요인으로 인천연안에는 갯벌이 넓게 발달했다. 인천연안 갯벌은 김포갯벌·송도갯벌·남동갯벌로 세분할 수 있다. 대규모 간척·매립 사업이 진행되기 전 1910년대 인천연안에는 이 모든 갯벌이 넓게 분포하였다. 그러나 갯벌은 1912년에 주안염전이 개발되면서 남동염전, 소래염전으로 개발·이용되었으나 1960년대까지는 자연 상태의 해안선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인천항 일대를 중심으로 매립되었으며, 1980년대는 남항 개발로 송도 갯벌의 북부가 준설되었고, 이어 1990년대는 김포갯벌, 송도갯벌이 대부분 매립되어 해안선이 직선화되었고 육지가 바다로 확대되어 육지 면적이 넓어졌다. 인천은 개항기로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에 걸쳐 106.789km²의 새로운 토지가 생성되었으며, 이 매립 면적은 현재 육지부 면적의 33.89%에 해당된다.



〈 1990년대 인천갯벌 〉

출처 : 인천연안갯벌간척에 따른
해안환경 변화



〈 1960년대 인천갯벌 〉

출처 : 인천연안갯벌간척에 따른
해안환경 변화

2) 매립지의 용도

시기별로 매립 면적을 분석해보면 매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는 1980년대이며, 매립 사업이 가장 적었던 시기는 1950년대로 이 시기는 매립사업의 정체기라 할 수 있다. 매립 목적별 용도를 살펴보면 개항기에는 주거용지, 일제강점기에는 병참 기지화를 위한 공업용지, 1960년대는 경제개발을 위한 공업용지, 1980년대는 농업용지와 쓰레기매립 용지, 1990년대는 도시용지, 발전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립이 이루어져왔다.

3) 인천연안의 수질오염

인천연안은 갯벌이 넓게 발달되어 있어 생산성이 높은 해역이다. 그러나 매립으로 갯벌 면적이 줄고 임해공공단지에서 오염된 육지수의 유입, 연안개발 등으

로 연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인천연안의 유입 오염원의 60%이상이 한강수계를 통하여 유입되므로 인천연안의 수질은 상당부분 수도권 수질오염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송도 지역의 오염이 심해 갯벌의 퇴적환경, 저서생물의 종수와 밀도, 동물 군별 종수, 우점종 밀도 등의 변화가 있었다. 퇴적물의 조성에서는 준설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니질 성분이 크게 증가하였고, 저서생물의 종수는 퇴적상이 급격히 세립해짐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였다. 동물군도 많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바다 밑 모래와 흙을 매립토로 이용하는 준설매립 과정에서 저서생물이 서식처가 파괴되어 유생이 죽거나, 미세부유물인 점토와 침전토의 비율이 30~42% 높아져 저서생물이 호흡곤란으로 폐사하고, 대규모 갯벌매립과 해사채취 등으로 해양오염의 심화, 해류변화와 갯벌유실 등 해양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인천시의 연안환경 개선방안

(1) 단기적인 시책

- 연안지역의 대대적인 청소 및 정비
- 해안의 불량경관요소 제거 및 차폐

(2) 중장기적인 정책

- 갯벌보전 및 연안생태계의 복원
- 연안 및 해양오염의 억제
- 해안친수활동의 활성화 및 해안친수공간의 조성
- 연안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 참고문헌 〉

- 김수연 / 2006 / 인천연안갯벌간척에 따른 해안환경 변화 /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경두 / 2003 / 인천 연안환경 개선방안 / 인천발전연구원 /
- 인천시민대토론회 준비위원회 / 2000 / 왜 다시 인천인가 / 다인아트
- 터사랑 / 2005 / 인천 땅 : 이만큼알기 / 다인아트 /

〈 참고 사이트 〉

-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인천환경문제 <http://ssrr.new21.net>